먹을수록 진한 풍미 '사워도우'

'래빗'의 고경란 대표와 아보카도 오픈토스트, 리코타 바질 오픈토스트, 에그 크레이프 등 브런치 메뉴. 이상국기자

당찬 맛집을 찾아서

<186> 제주시 도남동 '래빗'

2년 연구해 천연발효종으로 만든 빵
딱딱한 식감·산미 느껴져 처음엔 생소
먹다보면 특유의 깊은 맛 즐길수 있어
아보카도·리코타 등 브런치 메뉴 선봬

브런치는 쉴 틈 없는 직장인들에게 사랑 받는 식사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숨 가쁜 평일을 보내고 맞는 주말, 느즈막히 자고 일어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와 빵을 먹는 것이야 말로 다가올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래빗'은 커피와 요거트, 청귤차는 물론 천연발효종으로 만든 '사워도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진 카페 내부는 '충전의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고경란(31·여) 래빗 대표에게 가게 소개를 부탁했다.

"제과제빵 기술에 관심이 많아 2년 동안 독학으로 사워도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워도우의 맛을 알게됐고, 이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어 지난해 8월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래빗이라는 이름은 사워도우로 만든 빵 모양이 토끼 같아서 지은 이름이예요."

사워도우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사워도우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100% 천연발효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시키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많이 발생해 다른 빵보다 소화가 잘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스트가 첨가된 빵보다 식감이 딱딱하고, 산미가 느껴져 처음에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먹다 보면 특유의 풍미와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 대표에게 손님들에게 사랑 받는 메뉴 몇 가지를 부탁했다. 그러자 테이블에는 사워도우 빵으로 만든 다양한 브런치와 커피, 딸기 음료가 차례로 나왔다.

우선 사워도우 빵 위에 아보카도와 계란, 바질 페스토가 올려진 '아보카도 오픈토스트'를 먹기로 했다. 빵답지 않게 다소 질긴 식감이 처음에 느껴졌지만,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배어나와 고 대표가 설명했던 사워도우를 혀와 입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혼자 돋보이는 것이 아닌 아보카도와 계란 등 빵 위에 올려진 재료의 맛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서 부드럽기만 한 빵보다 풍미를 더 살려주는 느낌이다. 아보카도와 계란 대신 말린 토마토와 리코타 치즈가 올려진 토스트 역시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줬다.

음료는 '생딸기주물럭 우유'를 마셨는데, 상큼하고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토스트를 먹었던 입 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이 밖에도 밀가루 반죽을 얇게 부친 크레이프로 감자와 계란, 베이컨을 싼 '에그 크레이프'도 담백하고 고소해 몇 조각 먹고 마는 기존 크레이프보다 나았다.

"사워도우로 만든 빵을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을 때 가장 기뻐요. 처음엔 생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나타나는 사워도우 같은 가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빗은 제주시 도남동 73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일요일 휴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메뉴는 아보카도 오픈토스트 1만2500원, 리코타 바질 오픈토스트 1만3500원, 에그 크레이프 9500원, 생딸기주물럭 우유 6000원, 아메리카노 4000원, 카페라떼 4500원 등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32) 한림화 소설 '불턱'

불턱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해녀들. 소설 '불턱'은 순덱이 어멍으로 통칭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름없는 여자들의 수난사를 그려냈다.

"갯가 불턱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잠수집단의 의회이자 학교
역사의 마디마디 불턱 배경
숱한 순덱이 어멍들의 생애

그것들엔 저마다 이름이 달렸다. 연대불턱, 새배불턱, 돗개불턱, 신동코지불턱, 모진다리불턱. 돌담으로 둘러져있거나 시멘트를 덧바른 곳, 바위나 궤(동굴) 형태도 있다. 2013년 제주연구원이 해녀문화유산으로 제주지역 불턱을 조사했더니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이 34개였고 8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다.

갯가 바람막이 되는 곳에 들어선 불턱은 물질하러 바닷가로 향할 때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피워 언 몸을 녹이는 장소다. 하지만 불턱은 해녀들의 쉼터 그 이상이다.

"이즈음에 이르러 제주 삼읍에 놓인 불턱마다 떠들썩하다네. 아낙네들에게 그지없이 부담스러운 성을 수비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들 생각들을 주고받느라고 말일세."

소설가 한림화의 단편 '불턱'. 소설집 '꽃 한송이 숨겨놓고'(1993)에 실린 '불턱'은 1601년 여름에서 시작된다. 작가가 잠수(潛嫂)로 칭한 가는꽃(細花) 마을 해녀들이 주인공이다.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성(城) 어귀에 파수를 보게하던 군역인 여정(女丁)을 통해 물질하랴, 밭일하랴, 집안살림하랴 짬내기도 버거운 그들의 이중삼중 고통을 담았다.

작가는 불턱을 두고 '잠수집단의 의회'이자 '학교'로 불렀다. 불턱에서는 해녀 개인의 신상은 물론 마을 전체의 삶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토론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어린 사람들은 불턱에서 물질과 인생을 배운다.

제주에서 '역모 사건'이 있던 그 해를 지나 1901년 5월 4일에 이르면 불턱의 화제는 신축년 난으로 옮겨간다. 마을마다 형편 닿는 대로 식량과 피륙을 거둬 '민꾼'(民軍)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에서 수탈에 지친 섬 백성들의 고난이 읽힌다. 1932년 2월 12일 불턱은 기어이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 해녀 항일운동의 공간이 된다. "우리 잠수들이 권익을 도모해보자고 결성한 조합을 그들이 한입에 집어먹고 우릴 억눌렀다는 사실은 누누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걸세.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그들이 짓밟는 힘 또한 너무 세군." 1948년 4월 30일의 불턱은 전에 없이 '색깔' 때문에 입씨름이 벌어진다.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판이니, 무슨 사람 세상이 이러나 싶다.

소설 속 화자는 역사의 마디마디 '순덱이 어멍'에게 편지글을 띄운다. 이 땅의 생명을 피워낸 여자들 모두 순덱이 어멍 아니었나. 바르게 살자고, 사람답게 살자고 애썼던 웃어른들이 앉았던 불턱을 그 많은 순덱이 어멍들이 세대를 이으며 물려받았다.

소설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1987년 3월 8일 불턱에서 끝이 난다. 감격에 겨운 화자는 순덱이 어멍에게 글을 쓴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육지가 섬을, 남자가 여자를 짓밟아온 역사를 얘기하세."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수훈 산업포장

강 태 식
(주)제성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

당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제33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산업포장 수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3대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제성자동차공업사 임직원 일동

축

수상 새마을포장

최 명 종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사무처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오 정 선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대원)

2019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포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대 장 **김 인 구** 외 대원일동